「취업진로연구」 제8권 제1호(통권 21호)
(사)한국취업진로학회
2018. Vol. 8, No.1, pp.137~158

논문접수일 : 2018년 02월 11일
최종수정일 : 2018년 03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3월 16일

교수들이 인식하는 대입전형별 입학생의 학업,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

이현우 (상명대학교)** ·**김효선** (상명대학교)***

국문요약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전형은 대학교육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로 파장도 크다. 이에 의거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학입학전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대입전형을 개선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 하자는 취지에서 2008년 학생부중심전형 대입정책을 시작으로 2015년에 학생부종합전형제도가 도입되어 내신성적과 함께 수상실적, 교사의 평가,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대학의 인재상과 맞추어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다양한 전형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 저하 및 대학생활 부적응,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대입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선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과연 전형별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양적연구에 치중해 있었던 것과 달리 질적인 접근을 통해 전형별 입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성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대입전형별 입학생들의 학업, 대학생활, 진로준비행동을 교수자의 인식을 통해 탐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5년 이상 대입전형별 입학생들의 교육추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A대학의 14인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수업시간이나 교내활동, 상담 등을 통해 교수자와 학생들이 만나는 접점에서 전형별 입학생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수시학생들은 학업태도는 좋았지만, 정시에 비해 학업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활동에서 보여지는 사회성은 수시학생들에게 대해 교수자들이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전형별 입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대입전 관련 전공경험이 있는 수시학생들의 적응도가 뛰어난 것으로 교수자들은 보고하였다.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신념과 준비활동은 고등학교때 경험이 대학교때 진로준비행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험이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에 대해서는 정시학생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전형별 학생들의 특성에 맞춘 학생지도 및 상담이 제언된다.

주제어 : 대입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업,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

* 본 논문은 2017학년도 상명대학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hwl@smu.ac.kr.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E-mail: hyosunk@smu.ac.kr; Tel: 02-781-7776; Fax: 02-2287-0065.

Ⅰ. 서 론

우리사회에서 대학입학전형은 지식위주의 정량적 평가로 인해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전공 선택과 대학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점수에 맞추어 대학진학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부중심전형 대입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인 출결, 봉사활동, 수상,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등을 대입선발 전형요소로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제도는 2015년에 도입되어 내신성적과 함께 수상실적, 희망진로, 교사의 평가,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학과 및 대학의 인재상과 맞추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식 대입 선발방식을 탈피하고 중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과 지도를 활성화 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 하기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의해 수시모집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매년 증가해왔고, 최근 2018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전국평균 23.6%를 훨씬 웃도는 43.3%를 선발하였다(서울시교육청, 2018).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및 대학생활 부적응이나 원래 취지와 달리 자기소개서나 소논문 등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대입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논의선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과연 전형별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이다. 즉,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들의 경우 자신에 진로에 맞추어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학생들이 대학진학 이후 학업성취나 대학생활, 그리고 진로에 있어서 어떻게 성취해나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성배(2016)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로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고 학업적응(학업성취도), 대학환경적응(학교생활적응), 개인의 정서적응(진로수준)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김태영과 김윤경의 연구(2014)는 사범대 학생들의 대학입학전형별 진로선택양상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정시모집 학생들에 비해서 자신의 졸업 후 교직을 더 많이 선호하며 교직 지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김지혜 등(2011)은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준비행동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은 학업 및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를 종합하여 다양한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축척하는 성과를 학업, 대학생활, 진로준비행동으로 나누고, 전형별 입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교수자의 인식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학생대상 양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학입학전형별 입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나,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지만(고정환・송준협, 2014; 김미원 등, 2014; 김준엽 등, 2013; 김태영・김윤경, 2014; 박미희・홍백의, 2010; 박성수, 2007, 오성배, 2015, 2016; 이경희, 2010; 이혜연 등, 2016; 조

명희 · 이현우, 2014; 조원기 · 이수정, 2016; 최현석 · 하정철, 2012; 한송이 · 김준엽, 2013), 교육의 주체로서 교수자의 측면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접점인 수업, 상담, 학교행사 등 다양한 교육의 장에서 전형별 입학생들의 성장에 대해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탐색할 수 없는 수업시간 내 혹은 밖의 생활 및 상담시 교수자가 인식하는 학생들의 학업, 대학생활, 진로준비행동의 양태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전형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여 잠재력과 능력을 충분히 키워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의 질적 측면을 탐구하고, 그 결과는 전형별 학생들의 양태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해를 높이고 교수들의 전형별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지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대학입학전형별 입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관한 선행연구

학업성취도는 대학생활의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인이며 성취도는 대학교육을 예측하는 다양한 변인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우리나라의 수학능력시험이나 미국의 SAT(Scholastic Aptitude Test: SAT)와 같은 표준화된 시험의 점수를 통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Hezlett et al., 2001; 신경희, 2000) 다양한 입학전형을 고려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김준엽 등, 2013, 이기종, 2013, 최현석 · 박철용, 2014, 한송이 · 김중엽, 2013). K대학의 사례를 통해 2011-2012년도의 입학생 중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상대하위순위(relative ascending rank)에 기초한 학업성취도를 분석을 실시한 최현석과 박철용의 연구(2013)는 입학사정관 전형, 수시 일반, 정시 일반 모집별로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입학사정관제 학생들이 일반 전형학생들에 비해서 거의 모든 학기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반 전형 중에서는 수시일반 학생들에 비해 정시 일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거의 모든 학기에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소재 종합대학의 2006-2008년까지 전형유형(일반, 학업우수자, 사회통합) 별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학업우수자전형이 가장 높고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김안나, 김성훈, 2009). 한국교육고용패널 2-4차 년도 자료를 분석한 김지하 · 이병식(2010)의 연구에서는 수시일반전형 입학생과 정시일반전형 입학생 간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시일반전형 모집 입학생들이 정시일반전형 입학생들에 비해서 학업성취도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008-2011학년도까지 입학사정관제의 전형요소에 따른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상관분석과 변량분석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 우정민 · 정다운(2012)의 연구결과는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성적 향상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2010-2013년도까지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전형(입학사정관, 학생부, 논술, 어학특기자, 수능) 및 단과대학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변화를 연구한 양인준(2014)의 연구에서는 1학년에서는 학업성취의 전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학사정관전형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와 이현우(2014)의 연구는 대학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전공계열별 신입생의 학습역량의 차이가 있는가를 서울소재 A대학의 2013년도 신입생 9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공계열에 따라 학습역량에 차이가 나타났고 입학전형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인문-사회계열은 입학사정과 수시전형이, 자연-공학계열은 정시전형이 학습역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에서 사용한 대학 성적뿐 아니라 교수자가 인식하는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업태도 및 성취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학업에 대한 전형별 입학생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2. 대학입학전형별 입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대학생의 비인지적 성취로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적응의 의미는 개인의 자신의 욕구에 맞춰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학생과 대학이라는 환경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Gerdes & Mallinckrodt, 1994). 우리 대학에서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비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상명대학교, 2015). 김보나(2011)의 연구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타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비행 대학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일반적 적응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오성배(2015)의 연구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타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애(2012)의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이 학교적응도와 학교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유현실(2012)의 연구에서도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이 타 전형 입학생보다 대학생활만족도 및 학교적응, 강의태도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사정관전형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교 활동과 교우관계가 좋고 대학생활 및 전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양인준, 2014). 입학전형별 입학생 생활적응도를 분석한 임진택 등(2014)의 연구결과는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이 논문우수자전형, 정시수능전형 입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보나와 김이경(2015)도 같은 결과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이 타전형 입학생에 비하여 학업 및 사회적 적응 수준과 일반적 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시와 수시로 나누어 학교 적응도를 살펴본 이두현(2009)의 연구는 앞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로 정시 입학전형 학생들의 적응도가 수시 입학전형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수경(2016)의 연구는 대학입학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 경험이 어떻게 다르며 그 결과 취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수시 및 정시 학생들이 특별전형에 비해서 학점관리, 대학 프로그램 참여, 교외 프로그

램 참여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입학전형에 따라 분명 다른 대학생활의 패턴이 나타나며, 정시 입학 전형 학생들보다 수시 입학전형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분야가 다양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욕구도 다양하게 나타난데 비해 대학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적응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3. 대학입학전형별 입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대학은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전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해나가는 시기이며, 졸업 후 직업선택에 대한 진로준비는 대학생의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진로준비에 대한 행동 수준은 입학 이후의 학생들의 주요한 성과로 간주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행동과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진로개발의 과정을 행동의 차원으로 개념화 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시 필요한 행동이나 진로결정 이후에 그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진로선택부터 직업에 대한 준비에 이르기 까지 진로 발달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라 하겠다(박유리 등, 2017).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김봉환(1997)의 연구이후 최근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개발에서 주요한 과정성취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등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행위(김종운・박성실, 2013; 신지영 등, 2012)로 학업성취도처럼 진로영역에 있어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며 동시에 대학입학전형의 성과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년(김봉환・김계현, 1997; 김형균, 2003; 이제경, 2004; 장선량, 2004), 성격, 등이 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진로결정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진로를 이미 결정한 학생들이 미결정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이 높다고 보고하였다(강연우 등, 2005; 김정화 등, 2012; 박유리 등, 2017; 장선량, 2004). 오성배(2015)의 연구는 2014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전형에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 수시입학전형, 정시 입학전형으로 나누어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타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유형과 진로 선택 양상에 대해 연구한 김태영과 김윤경(2014)의 연구는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의식이 높으며 교직 지향성이 일반 전형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조동헌 등(2012)은 고등학생들 3,7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학사정관전형 준비 학생이 미준비학생에 비해 진로 자아인식, 진로성숙도, 진로진학결정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학전형별로 대학입학생들의 진로의식 및 관련 행동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구인으로는 우리나라에 처음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를 소개한 김봉환(1997)은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박정희와 김홍석(2009)은 박완성(2002)이 개발한 진로준

비행동검사를 변형해서 사용한 연구에서는 하위구인으로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서희정과 윤명희(2011)은 대학생 대상 진로준비행동검사를 개발하고 학습영역,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 취업실전영역으로 하위영역을 구분하였다. 조영아와 정철영(2013)의 연구는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개발행동으로 나누어 하위구인을 설정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본인에게 맞는 진로분야를 결정하기 위한 탐색과 선택한 진로에 대한 준비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종찬・홍아정, 2013)으로 대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성장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어떠한 학생이 선발되었는가 보다는 선발된 이후 이들이 대학에서의 성취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 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입학전형별 학생들의 학업태도 및 성취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의 자료와 대상

본 연구는 교수가 학습자를 실제로 접점 하는 수업, 학교생활, 진로상담 및 지도 시 전형별 학생들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간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A대학에 임용된지 5년 이상되는 교수 총 14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인 Focus Group Interview(FGI)를 수행하였다. A대학은 수시전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시전형(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을 확대해오고 있다. 교수자들은 현재 재학중인 학부학생들을 1-4학년 전공수업을 담당했던 교수자로 학생대상 대학생활 및 진로 상담에 경험이 있는 교수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이 FGI인만큼 연구 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을 먼저 선정하고 입학사정관이 학생전형별 특성을 함께 논의하기 원하는 교수들을 추천하는 방식, 즉 스노우볼 샘플링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FGI의 장점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경험이 없는 교수도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9명(64.3%),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5명(35.7%)으로 나타났다.

<표 1> FGI 참여자 선정 및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소속	입학사정관 경험
A	가족복지학과	무
B	가족복지학과	유
C	공간환경학부	유
D	전기공학과	유
E	생활예술학과	유

F	경영학부	무
G	글로벌경영학과	무
H	경영학부	무
I	수학교육과	유
J	문헌정보학과	유
K	지적재산권학과	유
L	영어교육과	유
M	국어교육과	유
N	교육학과	무

3.2 연구 방법 및 분석 방법

3.2.1 연구의 방법

전형에 따라 학업성취도, 대학생활적응도, 진로 관련 학생들의 행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전형별 학생들의 수업 내·외의 대학활동-학과 및 학교생활, 진로준비행동에서의 차이를 교수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그대로 기술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위해 Focus Group Interview(FGI)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FGI는 특정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참여자들의 의견과 경험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직접적인 현상을 제시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FGI은 참여자들에게 매우 익숙하거나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주제에 적합하며, 그룹 내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덧붙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룹 내 구성원 간 논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FGI는 연구자 2인이 참여하여 1인은 진행자를 1인은 보조진행자가 되어 논의를 진행하고 FGI종료 이후 연구자 간에 비평을 통해 FGI 자료를 정리 및 분석을 강화할 수 있다(신경림, 2004). 구체적인 FGI 절차는 첫째, 사전에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전형별 학생들의 수업시간, 대학생활에서의 행동 패턴,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교수자가 인식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연구진들의 합의 하에 면접 질문을 완성하고 입학사정관 2인 및 교육전공자 2인과 함께 질문지를 최종검토 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아래와 <표 2>와 같다.

<표 2> FGI 질문지의 구성

구분	면접(인터뷰) 질문
강의(수업)에서의 성취	교수님들은 수업시간 내에서 발표도, 팀 과제 수행 등 학업관련 활동에 있어 전형별 학생들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활동	교수님들이 인식하는 전형별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로준비행동	대학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형별 학생들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 질문지를 공유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법, 다음 FGI에서 관찰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1-2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전형별 학생들의 수업, 대학생활, 진로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FGI에서는 사전에 공유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FGI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5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룹 당 참여자는 2-3명으로 집단의 특성을 살려 가급적 입학사정관인 팀원 2명과 입학사정관 경험이 없는 팀원 1인으로 구성하여 집단 내의 다양한 견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1-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FGI 진행 내용에 대해 녹음이 진행됨을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FGI의 진행과정 및 녹취, 자료의 이용, 비밀유지, 자료의 폐기에 대해서 설명한 후 FGI를 진행하고 보조진행자는 필드노트를 작성하였으며 녹취된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다.

3.2.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하여 4단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김영천, 2014). 실용적 절충주의는 질적 자료 분석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종합적 시야를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교수들이 인식하는 입학전형별 학생들의 행동패턴의 차이를 밝히는데 있어 유의미 한 방법이다. 분석 1단계에서는 FGI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고, 질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리를 하였다. 2단계에서는 전사본에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나타난 면담내용을 정리하며, 이에 대한 의미를 메모로 남겼다. 3단계에서는 분석적 메모를 통해 1차 코딩을 진행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범주들을 생성하였다. 4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코딩을 진행하며 일반적이지 않고, 학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 범주들을 확인하였다. 5단계에서는 최종적 코딩을 통해 범주들을 통합하고,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6단계에서는 이러한 코딩을 통해 나타난 면담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결과를 작성하였다(<표 3> 참조).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분석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학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3회에 걸쳐 분석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표 3>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

단계	관계	세부적 분석절차 및 내용
1단계	↓	반복적인 자료 읽기/질적 자료 정리(관리)하기
2단계	↕	분석적 메모쓰기(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
3단계	↕	1차 코딩(코딩을 통한 코드와 범주의 초기 생성)
4단계	↕	2차 코딩(추가적 코딩을 통한 새로운 코드와 범주의 관계파악)
5단계	↕	3차 코딩(최종적 코딩을 통한 범주들의 통합 및 문화적 주제 발견)
6단계	↑	연구결과 재현

출처: 이동성・김영천(2014), p. 165

본 연구를 분석하기 FGI를 통해 논의된 내용으로 범주 및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범주인 학업성취는 수업시간 내에서의 태도의 주요 하위 범주는 수업 적응도, 자리배치, 발표 및 협력 정도로 구분되었다. 두 번째 범주인 대학생활에 대한 차이는 중도탈락, 학과 및 학교행사에 대한 참여, 학과에 대한 애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는 박정희와 김홍석(2009)이 사용한 준비행동검사의 하위구인-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이 다른 연구들과 달리 활동중심이면서 교수자가 학생들의 학교활동이나 상담 시 발견할 수 있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의 범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4> 연구 분석의 범주

범주	하위범주
학업성취	수업 적응도, 자리배치, 발표, 협력, 성적
대학생활	중도탈락, 학과 및 학교행사에 대한 참여, 학과에 대한 애착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

Ⅳ. 분석 결과

4.1 전형별 입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본 연구에서는 수업시간 내에서 발표도, 팀 과제 수행 등 학업관련 활동에 있어 전형별 학생들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수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인식한 학생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확인하고 이를 전형별로 나누어 면담이 진행되었다. 주요 하위 범주는 수업 적응도, 발표도, 자리배치, 협력도, 학업 성취도로 구분되었다. 수업 내에서 전형별 학생들의 차이는 학과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대다수는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매우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시 학생들이 전공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건 확실해요. 정시보다 눈에 띄어요. 학종의 취지가 꼭 성적으로 뽑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적이 약할 수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 애들이 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되게 적극적이에요. 뭘 만드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아이디어를 잘 내고, 전략도 잘 짜고. 그런 학생들이 명단에도 눈에 띄네요. 보람 있죠.(교수 E)

매번 보면 수업 태도도 굉장히 바르고, 그래서 일단 성적은 좋고, 질문하는 것만 들어봐도

진짜 수업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있어요.(교수 F)

교수자들은 수시전형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정시전형 학생보다 높으며 수업 태도도 좋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수업에서는 주로 앞자리에 앉아 교수자와 상호작용하고, 질문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업 적응도가 정시전형 학생들보다 높다고 분석된다. 특히, 수시전형 학생들은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부합할 때, 더욱 수업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시전형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전공에 대해 탐색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이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시전형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이해도 및 일치도가 높음에 따라 전공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된다.

서류를 보면 거의 전공관련 경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공지식이 조금은 쌓여 있어요. 도서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대관이나 탐색을 하는 간단한 경험이 있는 애들이라.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자기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 내에서 자신감을 보여요. 가운데로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고, 적극성을 어필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교수 J)

A대학의 대표적인 수시전형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지원자가 학과에 적합한 학생인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각 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고교시절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교수자와 상호작용하며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수시 전형의 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기에 수업 적응도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시 친구들이 자기주도성이 강하고 수동적이지 않고, 수업 중에서도 되게 수업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하는 구나,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고 느껴졌던 애들이 많네요.(교수 B)

하지만 교수자들은 학업성취도 면에서 수시전형 학생들보다 정시전형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다. 수시전형 학생들은 수업에서의 참여도는 높지만 지필식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나타내지 못해 정시전형 학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정시전형 학생들은 교수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과거 성공했던 경험이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교수자는 정시전형을 통해 진학한 학생들이 학과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단지 점수에 맞춰 진학하였다는 인식이 강했다. 대신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학습방법을 통해 학업을 이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수시 전형 학생들보다 우수한 수업 적응도를 보였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서 들어오니까 공부에 대한 것은 수시 학생보다는 극복이 쉬우니 오히려 수업을 더 잘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교수 K)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이 임용시험이나 공무원시험도 잘 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과에서 성적이 제일 좋고 태도도 아주 우수한 친구인데 보니까 정시전형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정시 학생들이 학점은 확실히 좋고 성적이 1, 2, 3등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시 학생이구요. 정말 공부하는 요령을 아는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도 성적이 좋아요.(교수 M)

교수자 M은 정시전형을 통해 진학한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서 적응도와 학업 성취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서의 태도도 매우 좋고, 이는 임용고시를 치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임용고시를 치르고 준비하는 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고시를 준비하는 데에도 자신만의 학습 방법 등을 파악하여 좋은 결과를 보인다.

물론 성적으로 본다고 하면 수시전형 학생들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학업성적과 사회성에 대한 측면을 본다면 최악은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성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수시전형 학생들은 적어도 그런 친구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시로 오게 되면 한두 명씩 꼭 보여요. 성적은 좋아요. 근데 모든 거를 성적으로 보상받으려는 게 있더라고요. 사회성은 본인에게 결여되어 있는데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 혼자 지내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정관이어도 뽑지 않을. 특히 사회성이 제 전공은 중요하거든요. 협동적인 태도가 혼자 뛰어난 학생들 보다 선호하죠. 부족한 것은 배우면 되니까.(교수 D)

공대교수인 D의 경우 전공의 특성상 팀이나 랩실에서의 학생들의 태도를 학점이상의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 정시에서 선발할 수 없는 즉,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수시전형에서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을 선발하여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교수자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수시전형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팀 과제 수행 과정에서도 발표 역할을 맡는 등 자기주도성이 강한 성향을 띄고 있었다. 하지만 정시전형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였던 정시전형 학생들이 학습방법을 터득하는 데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된다. 김태영 등(2014)의 연구에서도 정시전형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위주로 선발되기에 상대적으로 시험에 익숙하다고 본 바와 같은 맥락이다. 학과마다 전형별 학생들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의 비율을 모든 학과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학과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4.2 전형별 입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수업 시간 외에 전형별 학생들의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위 범주로는 중도탈락, 학과 및 학교행사에 대한 참여, 학과에 대한 애착 3가지로 구성되었다. 교수자들은 수시전형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 동아리 참여 등이 많은 것을 통해 대학생활의 참여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수시전형의 학생이 정시전형의 학생보다 학과 및 학교에 대한 애착도가 높다고 보았다. 이는 수시전형이 타 전형 입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에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 오성배(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눈에 띄었던 아이들이 수시전형에 많이 있어요. 그만큼 애들이 학교 안에서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조용히 자기 공부만 하는 애들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시전형 리스트에 학생회 간부들이 다 있네요.(교수 A)

수시 애들이 잘하고자, 의욕적으로 왔다는 건 더 맞는 것 같아요. 학과의 대표를 맡는다든가 어딜 가서 조장을 맡는다든가 이런 것은 수시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가 먼저 되는 애들이 좀 활발한 것 같아요. 걔네들이 주도를 해요.(교수 J)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고, 활동의 부분에 있어서 대외활동이든 아니면 자기 학교생활에서 있어서의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정시학생보다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교수 K)

위와 같이, 교수자들은 수시전형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시전형 학생들보다 학과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학생회 활동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조직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고교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고,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수시전형에 속해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대학입시 준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성적이 아닌 관심 있는 진로와 관련된 학과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충성도가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수시 들어온 학생들이. 제가 봐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실기로 반을 뽑고, 반은 10명 정도는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제가 가르쳐 보면 포트폴리오도 3학년 때 한번 쭉 보는데 3년 동안 뭐했냐 보는데, 깜짝 놀란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잘 준비하더라고요.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하는데, 가구만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양하게 한 경험들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충성도와 관계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학업 면에서도 적극적이에요.(교수 E)

수시전형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일과 직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왔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역량을 지니고자 노력해왔으며, 이는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계획성 등의 면에서 우수한 학생이라 분석된다. 이러한 학과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성은 중도탈락률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대부분이 수시전형의 학생들은 중도탈락률이 낮은 반면, 정시전형 학생들은 높은 양상을 보였다.

반수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거의 없어요. 정시에서 반수를 하거나 재수를 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고, 본인들 성적이 아쉬우니까 다시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간혹 수시도 있지만 대게 정시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요. 학교에 와서 우리 학과에 애착을 갖고 공부를 하겠다는 부분보다 본인 성적에 맞추었기 때문에.(교수 K)

각 학번에서 중도 탈락되는 아이들은 한두 명씩 있고, 이 친구들이 수능전형이네요. 학교 적응이 어렵고, 그러다가 학교를 잘 안 나오고, 이제 연락해보면 결국 학교에서 학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능에서 확실히 두드러지는(교수 N)

수시전형 학생들은 중도탈락을 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이는 수시전형 학생이 정시전형 학생보다 중도탈락률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세훈 등, 2013; 김지하 등, 2010; 박상규, 2011; 전경애, 2012). 수시전형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 학교 및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혹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입학 후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시전형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성적이었기 때문에 교수자들은 정시전형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적은 채로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입학 한 후에 전공 및 진로에 대해 탐구를 하게 됨으로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재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많아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휴학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쳐지고 우울해서 휴학하는 애들이 있고, 더 나은 것을 하려고 휴학하는 애들이 있는데, 약간 이 과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해보겠다고 휴학을 하고 과에 거의 소속감을 안 가지는 스타일의 범례들이 있어요, 정시 아이들이. 그리고 수업 뭐 듣니? 하고 물어보면 거의 우리 과 전공은 안 듣는 거예요. 재수해서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복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성적 맞춰 온 거죠.(교수 A)

점수 맞춰서 온 애들을 보면 점수 맞춰서 왔는데 특별히 전공에 대해서 애착이 없고 그러면서 내가 이것보다는 능력이 더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수시로 온 애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자기가 이 학교에 들어왔다는 거에 기뻐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난 여기 온 게 너무 즐겁고, 여기 안에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정시로 온 애들은 어쩌다보니 여기에 왔다는 느낌이 많아서 학교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약간 계속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교수 B)

특히, 교수자들은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낮은 애착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제1전공과목을 수강하기 보다는 복수전공 혹은 다전공을 통해 타 학과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수시전형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진로와 관련해서도 선호하는 방향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교양필수과목 외에 가족복지학과 전공을 수강하여 학점을 채워야 졸업 시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3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가 아닌 다른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만을 취득한 채 타과를 전공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학과에서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학생들의 학과 및 학교생활 참여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형별 차이가 아닌 개인적인 특성이라 생각하는 교수자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학생 모두 학과 활동에 적극적이라고 하였다.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특수목적대학인 사범대학은 정시전형으로 입학을 하였더라도 사범대학이 싫어서 다른 진로를 찾는 학생의 비율은 낮았다. 학생이 생각하는 진로가 학과와 맞지 않는다면 중도탈락률이 높은 다른 학과에 비해 사범대학은 진로가 다르더라도 낮은 중도탈락률을 보였다. 따라서 학과 및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학생들 간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저도 학과활동 같은 것은 오히려 수시 쪽이 많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대표, 학번대표, 학과장 이런 친구들을 보니까 일반전형도 많네요. 학생부종합 전형도 섞여 있고, 딱히 학과 활동을 주도하고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교수 M)

약간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 되는 애들이 정시 쪽에 많고, 아무래도 학생부종합하고, 교과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교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나 이런 것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 활동은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어요.(교수 L)

수시 전형의 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학과 행사 참여, 학생회 활동 등에서 학과와 학교에 대한 애착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탈락률 또한 정시학생들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고교시절부터 본인이 생각해온 진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하는 열의가 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정시 전형의 학생들은 학과와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 다소 높은 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보기 위해 휴학과 자퇴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4.3 전형별 입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전형별 입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교수자의 수업 내·외에서 인식한 학생들의 진로 신념, 준비도를 확인하고 이를 전형별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요 하위 범주는 진로 신념, 진로 준비도로 구분되었다. 전형별로 진로 신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정시전형의 경우 고교시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신만의 학습방법이 있고, 이는 곧 시험이라는 평가방법에서 자신감과 경쟁력을 가진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정시전형 출신의 경우 전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여 도전하려고 하며, 그중에서도 시험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는 진로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기 진로 열심히 찾는 애들이 우리 전공으로 그렇게 가려는 게 아니고 좀 뭔가를 넘어서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럼 걔들이 다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자기들이 보면 잘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시험에 대한 경쟁력이 본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죠. 재수를 했거나 이런 아이들. 남자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시험을 봐서 돌파하고 들어가는 그런 류의 진로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아닌가.(교수 A)

수시전형의 경우 고교시절부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진로신념을 형성한다고 보았고, 이 과정을 통해 대학에서는 진로계획을 이루어나간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김대현 등(2015)의 연구결과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 학생들이 고교시절부터 진로를 꾸준히 이어온다는 점, 이에 따라 진로에 대한 사전지식이 풍부하고 자신의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는 점과 일치한다. 하지만 교수자는 학생들이 진로를 고정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으나 한편으로는 너무 이르게 진로신념과 계획이 세워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학생과 교수자 간의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가 1학년 수시학생들 보면서 저렇게 뚜렷하면 안 되는 나이에 너무 뚜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학년 때 상당히 뚜렷하고 2,3학년 때 흔들리다가 4학년 때 잡힐 것 같은 느낌인데, 애들이 입시를 치루고 들어왔잖아요. 자기소개서 및 진로계획서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그런 생각으로 고정을 시키고 오픈되어있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나 이거 하려고 이 과에 왔어.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는데, 제가 오히려 다른 것도 좀 들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오히려 너무 이른 결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교수 A)

특히 국어교육과의 경우 교사라는 진로를 계획하고 지원하는 학생이 많다고 교수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대학생활에서의 전형별 차이 중 정시전형의 경우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 다소 높은 것에 비추어보면 수립한 진로 계획을 추진하기도 전에 중도탈락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시 친구들이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범대에 국어교육과라는 건 만족하는데 학교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제 지도 학생 같은 경우는 면담할 때 이야기해보니까 더 높은 레벨의 학교가 아닌 여기가 지금 된 거죠. 근데 지금 자기 친구들은 다 재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왔대요. (중략) 그러더니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뭐 어쨌든 교사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잡는 것 같더니, 중간시험 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안 나오더니 연락해보니까 반수를 이제 하는 거예요.(교수 M)

수시전형 학생들은 고교시절부터 만들어온 자신만의 진로 신념과 계획이 뚜렷하며, 대학입학 후에도 자신의 진로계획을 하나씩 실천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정시전형 학생들은 대학입학 초기에 진로계획을 명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수시전형 학생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시험을 기반으로 한 진로, 즉 공무원, 기업 등 시험을 기반으로 한 직업선발에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로계획을 세울 시 시험으로 선발되는 곳을 선호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정시전형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수시전형 학생들의 경우 관심분야 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일찍이 자신만의 진로신념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진로를 준비한다고 분석된다. 다음으로 진로 준비에서의 전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수시전형의 경우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 및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진로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100% 수시 아이라고는 얘기할 순 없는데, 질문이 많아요. 선배한테 궁금한 게 많고. (중략) 그 때 손을 들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제 기억에는 수시로 왔던 아이들이었던 거 같아요. 적극적이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베이스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교수 J)

선택교과학생, 수시로 온 학생인데요. 이제 2학년 끝났는데 며칠 전부터 죽상을 하더니 자기가 면담하겠다고 연락 먼저 해서 왔어요. 사서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교육 때 한번 들어가는 걸 묻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사서로써 공무원이 되고자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미리 그 실행계획이 있는 아이에요. (중략) 진로도가 다른 애들보다 많이 앞에 가 있더라고요.(교수 J)

수시전형 학생의 경우 '선배와의 만남' 같은 진로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관심분야의 전문가에게 자신의 진로고민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지도교수와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 약속을 잡는 등 저학년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준비를 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수시전형 학생의 경우 정시전형 보다 진로준비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교수자들은 정시전형 학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에 맞춰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고, 진로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입학 후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진로에 대한 목표선택이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한 신지영 등(2012)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보면, 미래의 목표가 뚜렷하게 확립되어 있는 수시전형의 경우 진로를 위한 행동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반면 정시전형의 경우 진로 준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된다.

1학년에게 너는 우리 학교 왜 왔니? 하면 정시는 점수 맞춰 왔어 하는 애들이 간혹 나와요. 전공을 보고 온 게 아니고 대부분 점수 맞춰서 왔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교수 B)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을 보면 잘하다가 갑자기 망쳐서 입학하기도 하고, 워낙에 잘하던 애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수능점수를 높여가지고 오는 애들은 적응하는데 조금 어렵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보니까 분명히 점수도 높게 들어온 것 같은데, 와서 보면 처음에는 되게 잘해 눈에 띄는데, 중간 쯤 가면 어디 아프고 그래요. 꾸준하게 자기가 뭔가를 즐기고 그런 게 아니니까 목표를 하다가 이게 한 학기쯤 돼서 스트레스 많아지고 부담스러워지면 약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시에서 그런 애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교수 L)

이처럼 정시전형의 경우 진로 준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식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목표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전공에 대한 애착이 낮아 전공과 관련된 진로로 목표를 세우지는 않으나, 시험으로 선발되는 방식의 진로나 자신만의 진로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진로 활동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취업도 빨리 되고, 그다음에 수업에 땡땡이 쳐서 너 한 번 더 빠지면 F야. 그래서 물어보면 뭘 하고 있어요. 애가. 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쥐어박으면서 내가 니 출석까지 챙겨야 되냐고 막 뭐라 그런 친구인데. 한 번 더 빠지면 F야 하니까, 그래요? 하니까, 내가 왜 이걸 걱정하고 있지? 마침 제가 지난주 그런 친구가 있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다 정시 쪽에서 취업이 됐거나 이미 그런 식으로 자기 진로를 지금 막 모색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교수 H)

그 점수 맞춰서 온 애들을 보면 점수 맞춰서 왔는데 특별히 전공에 대해서 애착이 없고 내가 이것보다는 능력이 더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와서는 진로에 있어서 이거 말고 다른 것,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교수 B)

수능전형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플랜을 자기가 다 짜 와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뭐 할 거다 이런 게 조금 면담을 할 때도 약간 되게 계획적으로 와서 조금 그런 성향이 있고 진로계획도 확립만 되면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죠.(교수 L)

수시와 정시가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저학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수시전형의 경우 전공 관련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준비 하고 있다고 보았고, 정시전형의 경우 진로계획이나 목표의식이 수시전형 학생에 비해 늦게 수립되는 편이며, 그 과정에서 중도탈락하지 않는다면 수립 후에는 성취지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다고 인식하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교수자 인식하는 전형별 입학생들의 행동패턴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교수대상 FGI를 실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수업현장과 그 외의 학과 및 학교생활,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수자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에 대한 입학전형별 차이는 정시전형 입학생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현석과 박철용의 연구(2013)와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정시전형 학생들은 수업 시간 내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업성과에 대해서는 수시전형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간격은 줄어드는데 이러한 차이의 감소가 수시 입학생들이 일반 정시 입학생들에 비해 대인관계, 수업만족도, 수업태도가 높아 적응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많이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시전형 입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때부터 대학 전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을하여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진로에 대한 일치도에 의거하여 수업 몰입도가 높았다. 고등학교때 정시준비를 한 학생들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수시전형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를 맡거나 협력적인 활동을 잘 수행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 및 질문을 주로 하며, 교수자와 가까이 앉아 수업을 듣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학교 및 학과에 적응력이 수시전형 학생들이 정시전형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때 진로와 대학교때의 진로가 일치할 경우 학교를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등 중도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적응도는 수시학생들은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만, 정시학생들의 경우 2학년 이후 즉,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의거하여 학교 및 학과에 적응이 어려운 정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때 보다 집중적인 적응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에서 전형별 차이는 수시전형 입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에서는 정시학생들보다 저학년부터 활발한 편으로 보고하였다. 학생회, 학과에서 개최하는 진로 및 전공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등학교부터 목표한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정시전형의 경우 수시전형에 비해 진로에 관한 고민을 늦게 가지는 편이나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수립한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간다고 보았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수시전형 입학생이 정시전형보다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준엽

등, 2013)와 달리, 취업준비활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시학생들이 적극적이라고 인식하는 교수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시험을 보는 직업군-공무원, 교사, 기업 등에 대해 더 높은 진로관련 성과를 나타낸다고 인식하였다. 김태영과 김윤경(2014)의 연구에서도 정시전형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위주로 선발되기에 상대적으로 시험에 익숙해서 관련 취업활동에 대해 성취동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은 학과의 진로성향이 사회성을 요구하고 팀기반 직무을 하는 직업군이나 특별한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자격증을 획득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학과에서는 수시전형의 학생들을 선호하였다. 이는 특히, 공무원시험이나 토익 또는 특정분야의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있어 정시전형의 학생들이 실행이나 성취면에서는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형별로 차이를 고려하여 학생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로 및 취업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업시간, 학교생활,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전형별 차이가 있었으나 학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교수 및 학생상담 관련자들이 전형별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체적으로 1-2학년때 정시전형에 대한 학생들과 수시전형에 대한 양태가 차이가 있는 편이며 이에 따라 입학 초기에 전형별 지도가 요구된다. 둘째, 저학년 정시 학생들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과의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배 멘토링 및 교수와의 상담을 강화하고 전형별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를 어느 정도로 탐색하고 확정한 수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시해주고 부가적으로 전공에 필요한 기초교과목에 대한 추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형에 따라 별도의 비교과 활동이 요청된다. 넷째, 전형별 입학생들의 차이를 통해 고등학교에서부터 진로에 대한 일치도가 대학생활 및 학업태도, 진로준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수시전형의 조정시 일괄적인 적용이나 축소가 아닌 대학차원에서 학과 및 단과 별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연 미래의 인재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전형별 입학생들의 차이를 양적연구로 알 수 없었던 학업, 대학생활, 진로준비행동에 나타나는 특성을 탐색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질적연구방법에 따른 한계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전형별 입학생들의 성장의 차이를 측정하는 양적연구가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특성과 교수자가 측정하는 학생들의 성취를 함께 연구하여 심층적인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References)

고정환・송준협(2014), “입학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의 연관성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5(6), 1475-1480.

김대현・이수영・최혜림(2015), “대입전형별 입학 후 대학생활 적응도 분석 연구”, **입학전형연구**, 4, 93-121.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미원・이한주・이윤주(2014), “대학입학전형 관련 요인에 따른 간호학과 1학년의 학업성취 분석: 일 대학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4), 596-605.

김보나(2011), **선발 방식에 따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세훈・이금호・허예라・김지하(2013), “일개 대학 의과대학생의 입학전형별 학업성과는 어떠한가?”, **한국의학교육**, 25(3), 201-209.

김수경(2016), “대학입학 유형 및 대학생활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취업진로연구**, 9(3), 1-20.

김종운・박성실 (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23-141.

김준엽・박소영・신혜숙・민병철(2013), “대학에서의 학습 및 활동을 중심으로 본 입학사정관제 성과”, **아시아교육연구**, 14(1), 29-50.

김지하・이병식(2010), “대학입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교육성과 차이 분석”, **교육과학연구**, 41(2), 209-230.

김정화・김미경・김진경・고은영(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417-442.

이종찬・홍아정(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1), 69-92.

임진택・조민경・김효희(2014), “대학생 진로의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회**, 52(4), 83-109.

김태영・김윤경(2014), “사범대학 학생들의 대학입학전형 유형별 입학 결정 계기, 교직 지향성, 진로 선택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1(2), 315-344.

김태영・차경환(2014), “입학전형별 사범대학 학생들의 전공, 교직, 교양 수업에서의 학습 태도와 학업성취도의 차이: C대학교 사례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133-153.

김지혜・한광령・김기섭・김우석(2011), “무용전공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3), 49-66.

박미희・홍백의(2010),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3), 27-50.

박상규(2011),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대학차원의 성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책포럼.

박성수(2007), “대학입학 전형요소와 대학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4(4), 27-56.

박정희・김홍석(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박유리・안세영・최보영(2017),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3), 381-397.

양인준(2014),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종단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오성배(2015), “대학입학전형별 입학생의 학교생활 추이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3(1), 1-18.
오성배(2016), “대학생의 입학전형별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4(3), 157-175.
오성배(2017), “대학생의 대입전형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5(2), 35-52.
우정민 · 정다운(2012), “입학 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을 통한 대학입학사정관제도 실효성 고찰”, **입학전형연구**, 2012(1), 153-179.
이두현(2009), **대학 입학유형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전북대학교.
유현실(2013), **입학사정관전형 학생의 추수 관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윤형식 · 강창완(2015), “입학전형유형에 따른 전형요소 및 신입생 특성 분석-2015학년도 D대학 입학전형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483-2493.
이경희(2010), “고교성적, 수능성적, 대학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고찰: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3), 313-342.
이동성 · 김영천(2014),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포괄적 분석절차 탐구: 실용적 절충주의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1), 159-184.
이혜연 · 조명희 · 이현우(2016),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고교 학생부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9(2), 109-127.
임진택 · 조민경 · 김효희(2014), “대학생 진로의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회**, 52(4), 83-109.
상명대학교(2015), **2014년 전형별 입학생의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종단연구**, 서울: 저자.
최현석 · 박철용(2013),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K대학교 사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4(6), 1149-1157.
신경림(2004), **질적 연구방법: 포커스 그룹**, 서울: 현문사.
서희정 · 윤명희(2011),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개발 및 진로행동 분석”, **진로교육연구**, 24(3), 117-134.
전경애(2012),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508-517.
조명희 · 이현우(2014), “대학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전공계열별 신입생의 학습역량 차이 분석”, **진로교육연구**, 27(3), 163-179.
조원기 · 이수정(2016), “대학입학전형과 대학생의 대학 생활 및 대학·전공 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673-700.
최현석 · 박철용(2013),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K대학교 사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4(6), 1149-1157.
최현석 · 하정철(2012), “입학전형요소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석 -2011학년도 A대학교 사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학회지**, 23(2), 343-351.
한송이 · 김준엽(2013), “미술대학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분석”, **교육방법연구**, 25(3), 501-520.

Gerdes, H. & Mallinckrodt, B. (1994), “Emotional,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 a longitudinal study of retention”, *Journal of Counselling & Development*, 72, 281-288.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8, No. 1 - March 2018

The Differences Based on University Admission Types in College of Educati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University Life Adjustment, Career Preparation based on Faculty's Cognition

Hyeon-Woo Lee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Hyo-Sun Kim*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In our county, university admission process is very critical issue not only for universit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but also our whole society. Korea government continuously has tried to improve this university admission process. From 2008, Korea government provided a new university admission process system, admission officer system in high school education. The system in revised 2015 considers students' high school GPA, teacher's evaluation,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etc.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system. such as a decline in the scholastic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fabricating documentary evidence. Based on these issues, Korea governmnt tried to re-modified the university admission proces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differences based on university admission types in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university life adjustment, career preparation based on faculty's cognition. To pursue it, the study occupied FGI with 14 professors who have teaching experiences at least 5 year and consulting with their students about their college life and career. The results of study provide the students by admission officer system have good academic and career attitude more than the students by regular admission process system. The students by admission officer well-adjusted campus life and activities. This study concluded university faculty need careful concern on students based on university admission types and the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admission strategies in higher education are discussed.

Key Words : *University Admission Process, Admission Officer System, Academic Achievement College adjustment, Career Preparation.*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un 2-gil, Jongno-gu, Seoul, Korea, 03016; E-mail: hyosunk@smu.ac.kr; Tel: +82-2-781-7776; Fax: +82-2-2287-0068.